

여수, 지자체 최초 UN기구와 COP33 협의

부시장 등 방문단 기후변화협약 사무국 방문

‘2026국제섬박람회’ 스폰서십 협력도 논의

여수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UN기구와 COP33 등을 직접 논의, 그 결과 주목된다.

6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정기 여수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시 방문단은 최근 독일 본에 위치한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을 방문, 관계자들과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UNFCCC 측은 “COP33 개최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국가) 간 협의가 중요하다”며 “행사장 구성과 숙박시설, 대중교

통 인프라 등 필수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는 점을 조언했다.

특히 COP 민간 협력 강화를 담당하는 Global Climate Action(글로벌 기후 행동) 팀은 “ICLEI(세계지방정부협의회), GCoM(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 등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5월 열리는 파나마 기후 주간과 6월 예정된 UNFCCC 중간 회의 등의 주요 국제행사에 대한 여수시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고했다.



최정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여수시 방문단은 최근 독일 본에 위치한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을 방문, 관계자들과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협력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와 함께 시는 UNFCCC와 2026여수 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공식 스폰서십

최정기 부시장은 “이번 UNFCCC와의 회의를 통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COP33 유치를 위한 여수시의 노력을 알리게 돼 기쁘다”며 “특히 세계 최초로 지방정부 차원의 UN기구와의 논의가 이뤄진 것은 여수시민들의 성원과 시의 노력이 일궈낸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여수시는 지난달 24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한 전남도 유럽사무소와 이클레이 세계본부를 방문, 유럽 지역 국가는 물론 125개국 2500여개 지방정부에 대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협력과 더불어 COP33 유치 홍보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LOCAL

2025년 5월 7일 수요일

정남진장흥토요시장 활성화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

장흥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정남진장흥토요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남진장흥토요시장 상설시장 수산물 코너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들은 국산 수산물 구매시 최대 30%를 할인받으며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은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후 영수증을 지참하고 환급장소인 상설시장 내 고객센터를 방문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금액별 환급액은 3만4000원 이상 구매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시 2만원이며 환급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가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정남진장흥토요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군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곡성,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11개 읍·면 기업들에 홍보

곡성군은 이달부터 기업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의 단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업해 개발 중인 디지털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업체에 따라 설립할 수 있는 공장의 위치 정보와 각종 법령, 규제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이는 개별 입지 공장설립에 주된 문제가 되는 입지선정 문제와 환경규제 문제에 사전에 안내해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사전진단 서비스는 기존 공장 관련 민원에 사용하는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시범 지자체가 아닌 지역의 입지를 확인하는 경우 사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군은 최근 지역 내 기업들이 공장의 증설 및 신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11개 읍면 및 실과소원과 기업들에 홍보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

고흥 유자와 중국 해삼 만남 ‘하이뉴’ 인기

시음회 개최…비타민C 풍부·원기 회복 효과

고흥군은 최근 군청 우주출에서 군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고흥 유자와 중국 해삼 추출물을 활용한 건강음료 ‘하이뉴’ 시음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음회는 고흥 유자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개발된 ‘하이뉴’를 소개하고 시음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하이뉴’는 지난 2023년 9월 공영민 군수가 농수산물 수출개척단 활동 중 제안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전남농업기술원과 중국 산둥 불곤그룹 산하 식품 연구소가 협력해 개발한 건강음료다.

유자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해

삼은 원기 회복에 효과가 있어, ‘하이뉴’는 중국 소비자들을 겨냥한 기능성 음료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초도물량 30만병을 생산해 중국에 수출했으며, 출시 10일 만에 완판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인기를 바탕으로 20만병을 추가 생산해 중국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공영민 군수는 “하이뉴는 고흥 유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흥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세계시장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는 최근 광양시청 시민홀에서 정기명 여수시장과 노관규 순천시장, 정인화 광양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만권 산업위기 극복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주력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광양만권 산업위기 극복·발전 ‘한목소리’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공동선언문 발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 정부에 요청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는 최근 광양시청 시민홀에서 ‘광양만권 산업위기 극복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주력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6일 광양시에 따르면 행정협의회에 정기명 여수시장과 노관규 순천시장, 정인화 광양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만권 경제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철강, 석유화학 등 지역 핵심 주력산업 위기극복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협의회는 공동선언문에서 “최근

미국의 고율 철강 관세 부과로 인한 철강 경기 위축과 중국의 저가 유탄제품의 국내 시장 침투에 따른 석유화학 산업 침체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연대의 힘으로 산업과 지역, 그리고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 공동 대응 의지를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국내 철강생산량 35%, 석유화학제품 생산량 50% 이상을 생산하는 광양만권 3개 시가 여수시의 주력산업 위기극복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지정되도록

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인재의 정착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생활 여건 개선을 통해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기로 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3개 시가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대정부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며 “이번 선언은 광양만권의 경제 위기를 보다 분명히 드러내고 정부와 전남도, 3개 시가 함께 대응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뜻을 담고 있으며 정부가 산업위기 지역 지정 등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선언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광양만권의 주력산업과 일자리, 교통, 정주여건 등 새로운 협력시대를 열어 나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영광, 미래비전 담은 대선공약 제안

에너지 기본소득 시범도시 지정 등 13개 주요 사업

영광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21대 대선 공약 제안 사업 보고회를 개최하고 13개 주요 사업을 대선공약으로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 건의할 영광지역의 강점과 미래비전을 반영한 과제를 발굴해 정책공약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보고회에서 ‘국가차원의 최초 에너지 기본소득 시범도시’와 ‘서남해안권 미래에너지산업 중심도시’를 영광이 나아가야 할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무탄소 에너지 국가산단 조

성, 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 해상풍력발전 지원 O&M 거점기지 건설, 탄소중립 스마트 농생명 산업단지 조성 및 배수해안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등 각 분야에 공약을 제안했다.

장세일 군수는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과 서남해안 에너지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도약이 영광군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다”며 “공약 제안 이후에도 새 정부 출범 후 중앙정부, 정당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실제 국정과제로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g98@gwangnam.co.kr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원호
220603-중-139779